

다양한 이벤트가 항시 열리는 활기 넘치는 삿포로의 봄과 여름

안녕하세요. 삿포로시 한국국제교류원 이미현입니다.

삿포로에서 생활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곳에 살기 전까지는 삿포로는 물론 훗카이도를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던 삿포로에 대한 인상이라고는 '눈이 많이 내리는 곳', '눈축제가 유명한 곳'밖에 없었는데요. 실제로 살아보니 삿포로에서는 겨울뿐만 아니라 봄부터 여름에 걸쳐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께 삿포로의 봄과 여름에 열리는 이벤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삿포로 관광사진 라이브러리에서)

봄의 시작을 알리는 5 월의 벚꽃이 지고, 5 월 중순이 되면 삿포로에는 라일락이 만개합니다. 그 시기에 맞춰 오도리 공원에서는 라일락 축제가 개최되는데요. 따뜻한 봄 햇살과 라일락 향기에 마음껏 취할 수 있는 이벤트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봄소풍 겸 가족끼리 찾기에 좋습니다. '노다테(□ だて; 야외에서 가지는 다과회)', '와시치기리에(□ □ ちぎり絵; 일본 전통지를 찢어 붙여 만드는 그림)' 같은 일본문화체험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놀러온 관광객 여러분들께도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파는 판매부스 '야타이'도 일본의 마쓰리에서 빠지면 섭섭하지요. 라일락 축제 현장에서는 홋카이도산 식재료로 만든 세계각지의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6 월이 되면 약동하는 여름이 시작됩니다. 초여름 삿포로에서는 YOSAKOI 소란 축제가 개최됩니다. YOSAKOI 소란 축제는 약 3 만명의 댄서들이 참가하며, 약 200 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대규모 이벤트로 '홋카이도 초여름 풍물시(□□□)'로 불리기도 합니다. 역대 대상팀이 참가하는 퍼레이드를 볼 수 있으며, 7 초메 이벤트장에서는 춤을 출 때 사용하는 악기인 나루코와 의상 핫피를 대여하므로 관객들도 자유롭게 참가하여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간단한 연습을 통해 메인 퍼레이드에 참가할 수 있는 연습팀도 있습니다.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분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북쪽 푸드파크'에서는 철판요리와 전국각지의 명물요리, 디저트를 판매하니 퍼레이드 구경이 끝난 뒤에 맛있는 요리를 즐기는 것은 어떨까요? YOSAKOI 소란 마쓰리를 통해 활기 넘치는 초여름의 삿포로를 만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6 월 중순에는 100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홋카이도 신궁제가 개최됩니다. 매년 6 월 14 일부터 16 일에 걸쳐 개최되는 홋카이도 신궁제는 '삿포로 축제'라는 별칭을 갖고 있을 정도로 삿포로를 대표하는 축제로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16 일에는 삿포로 시내에서 1,000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하는 오미코시(おみこし; 신을 모신 가마) 행렬을 볼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 신궁과 나카지마 공원에는 음식 판매부스가 줄을 지어 축제의 분위기를 띄웁니다. 특히 홋카이도 신궁에서는 전통적인 봉납행사도 실시되기 때문에 일본 축제 특유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꼭 홋카이도 신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 월~6 월 사이에 개최되는 세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소개드렸는데, 이 이벤트들은 삿포로 봄·여름 축제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PMF(Pacific Music Festival), SAPPORO CITY ZAZZ, 비어가든 등 다양한 장르의 이벤트가 꼬리를 물듯 여름내 개최됩니다. 여름에 삿포로 방문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꼭 삿포로의 여름 이벤트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